

대행 스님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작업을 하라

새해가 오자마자 이라크·페만 사건이 벌어지고, 뭐, 예견했던 바이지마는 그렇게 속성과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면 말이 안 되지마는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예전에도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완성을 해야만이 외부의 모든 것들을 다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한마음은 빛보다 더 빠르다고요. 빠르게 오고 가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시대는 보는 것도 컴퓨터나 미사일이나 또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두루 하면서 보는 그 견해가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됐는지, 그 먼 거리를 눈앞에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정말이지 천체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건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앞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병고 액난에 휘달리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도 말했지만 세균성이나 영계성 또는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이런 것을 다 여러분이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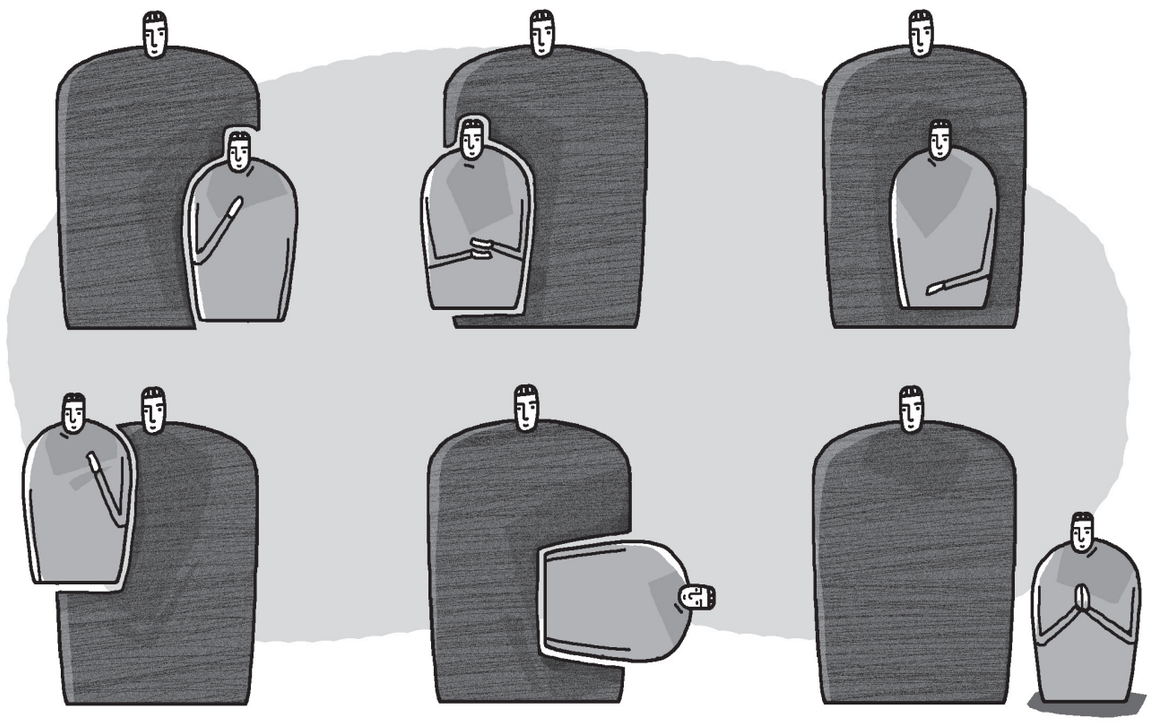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지금 이 세상도 벌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부터 완성해야 내 골수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팔만대장경이니 이 세상을 다 깨달을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점에 있어서 통달하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린 죽어서도 지금 현재 의식 그 그릇대로 남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만물이 허무가 아니라 무상(無常)이라고 했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숴지고 변해지고 죽고, 천차만별로 변화돼 가고 이럽니다. 그것은 허무가 아니라 무상이겠죠.

한마디 언급할 것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천체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가 인간 마음의 근본에 가설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혹성이라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은 바로 별성과 같은 거죠. 그러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색은 공하고, 공한 것은 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아십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렸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까닭은 무엇인지도 수차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는 까닭은 뭐냐고 또 묻고 그랬죠.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까닭 말입니다. 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동방에는 아촉으로 이름을 지어 놓고 서방에는 아미타로 지어 놓고, 사바세계는 관세음으로 지어 놓고 지천국에는 지장으로 지어 놨단 말입니다, 이름을.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뿐이 아니라 천백억화신의 이름이 다 부처님의 마음일지언댄 어찌 여러분이 그 말만 듣고 이 이름에다가 빌고 저 이름에다가 빌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참마음은 발견하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가면서도 자기를 완성 못 하고 항상 헤매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그뿐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볼 때 지금 이라크 문제도 욕심이 과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처님이 나신 고장에도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한 번 두 번이나 봐줬지 세 번은 봐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착이 있으면 욕심이 붙고 욕심이 붙으면 일을 저지르는 거죠. 너무 과한 욕심은 부리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키우는 데도 여러분이 모범이 돼야 하고 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른다면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빗나가고 그게 뭉치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엘 가니까 어머니는 아침에 나가고 아버지는 저녁에 나가고 그러니, 애들 얼굴은 이틀에 한 번 보고 사흘에도 한 번 보고 이런 집들이 허다합디다. 그러니까 애들이 방황하게 되고, 사랑에 굶주리고 고독한 그 마음에서 따뜻한 둥지를 찾아가느라고 나쁘게들 되는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나가는 엄마는 반찬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냉장고에다가 "너를 사랑해. 우리 식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는 일하러 나간다. 여기 이렇게 넣어 놨으니까 꺼내 먹어라. 사랑해." 하고서 고 쪽지에다가 써서 냉장고 거기다 붙여 놓고, 뽀뽀라도 하나 해서 거기 붙여 놓고, 허허허, 이렇하고서 나가면 아이들이 이탈되지 않는다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몸으로써 몸소 붙잡아 주고 말해 주고 이래서 사랑이 아니라, 이어지지 않으면서도 전달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손길이란 그렇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이어 가는 그 마음이죠. 거기에 자녀들과 남편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서로 화목하게 이루어 나가고 또는 이탈되지 않는 방법이 있죠.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욕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전력은 이 전구나 저 전구나 똑같듯이 우리의 마음들도 똑같이 아들이라는 그 가설, 또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설이 된 거죠.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거기서밖에는 화목하게 할 수 없다, 거기서밖에는 병고를 낫게 할 수 없다, 거기서밖에는 액난을 물리칠 수 없다, 유전을 물리칠 수 없다'고 믿고 모든 일체를 다 구멍 없는 구멍에 맡겨 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화목을 가져오고 사랑을 가져오고, 이탈을 안 가져오고,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공부를 잘 하게 되고, 정신력이 아주 투철해지고, 모든 물리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행복이 오는 거죠. 요거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놓고요.

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아니라면 모두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몸속의 공장이 많이 있죠. 그 공장을 이끌어 나가는 한마음의 지배인한테다 맡기고 놓는 작업을 한다면 그게 한마음으로 돌아져서 어떠한 파업이 일어난 회사도 정돈이 되고 또 능률이 생기고 가동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병고액난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보살의 이름이 있는 걸 볼 때, 부처님께서는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면서 삼십이응신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처님이시다 이런 거죠, 보살들도 그랬고. 그 보살이 삼십이응신으로 받아들이고 또 천백억화신으로 나투시는 그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